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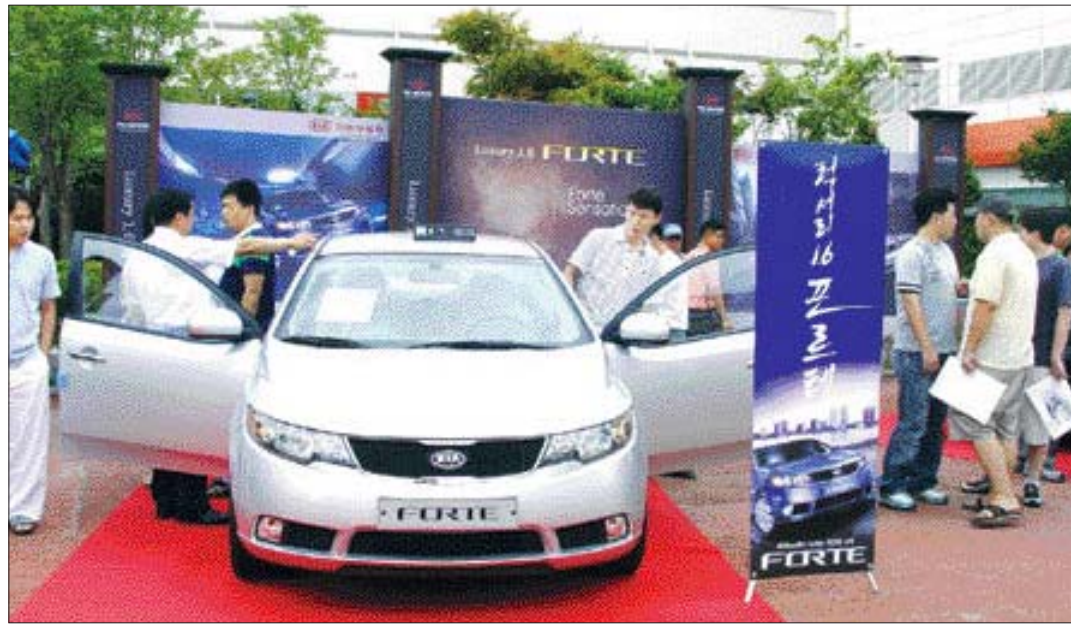
#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공행진' 고정금리 10% 육박

농협 7.95~9.63%·신한 8.02~9.62%  
변동금리도 0.22%~0.67%P씩 상승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최고치가 연 1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주택담보대출 3년 고정금리가 농협은 연 7.95~9.63%에 달하고 신한은행도 연 8.02~9.62%로 전주에 비해 0.03%포인트씩 오르며 10%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나은행은 연 8.83~9.43%, 국민은행은 연 7.90~9.40%, 우리은행은 연 8.21~9.31%, 기업은행은 연 7.66~9.12%, 외환은행 연 7.71~8.41%다. 농협은 6월말 이래 고정금리 최고치가 1%포인트

인트나 뛰었고 신한은행도 0.82%포인트 올랐다.  
3개월 CD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농협이 연 6.57~8.25%이고 기업은행은 연 6.50~8.20%, 신한은행 연 6.59~8.19%, 국민은행은 연 6.55~8.0%, 우리은행 연 6.69~7.99%, 하나은행 연 7.09~7.79%, 외환은행 연 6.44~7.72%다.  
변동금리 최고치도 농협은 6월 말 이래 0.67%포인트 올랐고 국민은행은 0.42%포인트, 우리은행은 0.22%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6개 주요 시중은행

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월 말 이래 지난 21일까지 1조4천249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액은 국민은행과 농협이 3천607억원, 신한은행이 2천712억원, 2천217억원, 신한은행이 1천729억원이었으며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은 643억원, 272억원이었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치솟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가 되는 은행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3년물 AAA등급 은행채 금리는 5월 말 5%대에서 5월 29일 6%대로 상승한 뒤 줄곧 올라 지난 22일 현재 6.74%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첫 선 기아 '포르테' (FORTE)가 광주·전남 고객들에게 첫선을 보였다. 기아차는 '포르테' 시판에 맞춰 지난 23일~24일 광주시 북구 흙골로, 목포 롯데마트, 여천 롯데마트 등 3곳에서 전시 이벤트를 가졌다.

## 신용스프레드 격차 7년만에 최고 기업 자금 조달 비상

## 대기업 상반기 투자 17% ↑

전경련 발표 ... 600대 기업 45조 달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상반기 대기업의 실적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으며 기업들의 투자가 극히 저조했다는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와 그에 따른 여론의 '경고'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24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600대 기업의 실적투자는 총 45조874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38조5천907억원 보다 1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조선과 철강, 전기·전자 등의 설비투자가 재개되면서 제조업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7.4% 늘어났고, 비제조업은 운수·전력·가스 등의 투자호조에 따라 16.1%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특히 "30대 그룹 소속기업

실적투자는 20.4% 증가한 29조1천248억원으로, 지난 7월 초 전경련이 회장단 회의를 통해 밝힌 30대 그룹의 상반기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 3 20 25 36 45	24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483,772,529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9,691,999	29
3 5개 숫자 일치	1,548,362	1,118
4 4개 숫자 일치	59,575	58,114
5 3개 숫자 일치	5,000	984,255

투자증가를 15.9%보다 높은 수치"라며 "대기업들이 자금을 쌓아놓고도 여전히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 여당 일각의 비판에 항변했다.  
연간 계획에 있어서도 상반기 실적을 포함한 올해 총 투자계획은 100조2천79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79조5천94억원에 비해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862708
2	1억	979510 5조 208932
3	1천만	1등과 조기 다른 번호
4	1백만	77122
5	50만	1132
6	2천	28 06 20 6
7	1천	3 7

주식가격이 급락하고 원화환율과 금리는 크게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신용스프레드 격차가 7년 만에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도 점점 확대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2%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신용위기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신용스프레드 격차 7년래 최대=24일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22일 3년만기 회사채(AA-) 수익률에서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뺀 신용스프레드는 1.47%포인트로 2001년 11월 13일 1.56%포인트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스프레드가 커졌다는 것은 기업들이 자금을 빌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IT버블 붕괴와 현대그룹 '왕자의 난', 미국 9.11 테러, 신용카드 위기 등 4차례 정도 신용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졌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신용스프레드 상승은 기업, 특히 부실기업이 높은 금리를 줘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신호는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연체율은 최근 1년 6개월 사이에 3배 가량 상승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은행들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47조9천억 원, 연체율은 0.68%로 집계됐다.  
내년 상반기 신용위기 위험 최대=증권·경제전문가들은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훨씬 낮은 3%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실징후로 인한 신용위기가 현실화된다면 그 시점은 성장률이 특별히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상반기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신용 스프레드(Credit Spread)=회사채 신용등급간의 금리격차를 말한다. 신용등급이 다른 회사채간에 얼마나 금리차가 나는가를 나타낸 지표로, 수치가 클수록 기업들이 자금을 빌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 파생펀드 투자 위험 86%가 마이너스 수익률

주식시장의 침체로 파생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펀드의 투자 위험이 주식형펀드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국내 펀드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파생펀드는 8월 중순 현재 설정액 기준으로 30조원을 돌파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파생펀드는 총자산의 10% 이상을 위험회피목적외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이 펀드는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장외파생상품의 손실로 인해 2007년에 비해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올해 8월 현재 운용 중인 47개 파생펀드 중 85.5%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가중평균 수익률도 -11.8%로 작년 8월 35.8%에 비해 크게 악화됐다.

국내 기업 CEO 81%  
“잘 노는 사람” 채용

국내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풍부한 놀이 경험을 중시하고 직원 채용에서도 '잘 노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삼성경제연구소가 경영자 대상 사이트인 '세리CEO' 회원 417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1.1%가 '인재를 채용할 때 잘 노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11.8%는 '매우 그렇다'고 밝혔다.  
실제 경영 업무에서도 '잘 노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5.2%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놀이가 참신한 아이디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STAINLESS 1952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대구 남동성동) (062) 227-9940  
총장점 (금남공원앞) (062) 227-9970

지니방 전문가 SAIR

SAIR

SAIR